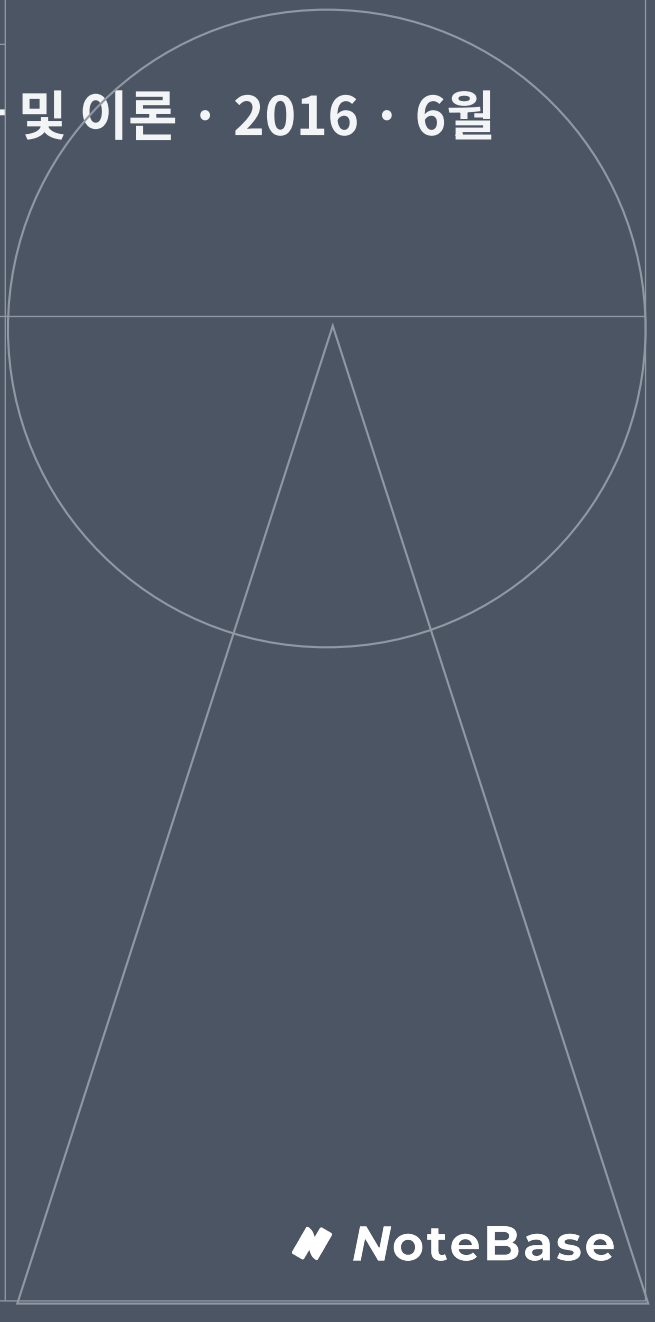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6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6 · 6월

문 1. 다음 중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캘버트 보우(Calvert Vaux)의 작품과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리젠트 파크(Regent Park)

②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③ 프로스펙트 파크(Prospect Park)

④ 프랭클린 파크(Franklin Park)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와 캘버트 보우의 대표 공원 작품을 구분하고, 두 사람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공원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 미국 근대 조경의 대표 인물로 대규모 도시공원 설계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캘버트 보우: 옴스테드와 협업하며 공원의 공간 구성과 건축적 장치를 함께 설계한 조경가이다.
센트럴 파크: 옴스테드와 보우가 함께 설계한 대표작이다.
프로스펙트 파크: 센트럴 파크 이후 옴스테드와 보우가 다시 함께 만든 대표 공원이다.
프랭클린 파크: 보스턴 에메랄드 네클리스의 일부로 옴스테드와 직접 관련된다.
리젠트 파크: 런던의 공원으로 존 내시와 연결되며 옴스테드·보우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리젠트 파크는 런던의 공원으로 일반적으로 존 내시의 계획과 연결된다. 옴스테드와 보우의 대표작 계열과는 직접적인 작품 연관이 가장 약하므로 정답이다.

② X
센트럴 파크는 옴스테드와 보우의 공동 대표작이다. 틀린 판단은 이 공원을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두 사람을 함께 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작품이다.

③ X
프로스펙트 파크도 옴스테드와 보우가 함께 설계한 대표 공원이다. 틀린 판단은 '연관성이 가장 적다'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센트럴 파크와 함께 두 사람의 협업을 보여 주는 핵심 작품이다.

④ X
프랭클린 파크는 보스턴 공원계획 속에서 옴스테드와 연결되는 작품이다. 보우와의 공동 대표작은 아니더라도 옴스테드와는 분명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리젠트 파크보다 옴스테드와의 연관성이 크다.

오답 포인트

프랭클린 파크가 옴스테드와 보우의 공동작이 아니라는 점만 보고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발문은 '두 사람의 작품과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와 직접 무관한 리젠트 파크가 더 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과 작품을 묶는 문제는 먼저 공동 대표작인지, 한 사람과라도 직접 연결되는지, 둘 다와 무관한지의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옴스테드·보우 조합이면 센트럴 파크와 프로스펙트 파크를 먼저 떠올리고, 완전히 다른 계보의 공원을 지우는 방식이 유효하다.

암기 포인트

옴스테드·보우 = 센트럴 파크, 프로스펙트 파크 / 리젠트 파크 = 존 내시 계열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고대 이집트와 서부아시아의 건축 및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존하는 이집트의 주택정원은 없으나 벽화를 통해 그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이집트는 예배신전, 장제신전 주위에 신원(Shrine Garden)을 조성하였다.

③ 메소포타미아의 주택은 대체로 중정을 갖는 2층 형식의 주택이었다.

④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건축은 대리석을 주재료로 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정원, 주거 형식, 건축 재료의 차이를 구분하는지 묻는다.

핵심 개념

이집트는 벽화와 묘실 자료를 통해 정원 구성을 복원할 수 있고, 신전 주변의 성역성 정원이 발달한 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는 석재가 부족한 충적 평야 문명으로 흙벽돌과 소성벽돌을 주로 사용했고, 중정을 둔 주택 형식이 발달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현존하는 이집트의 주택정원 유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무덤 벽화와 정원 묘사 자료를 통해 수로, 연못, 열식 식재 같은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② O

이집트에서는 예배신전과 장제신전 주변에 신성한 성격의 정원이 조성되었다. 신전 공간과 정원이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③ O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주택은 안뜰인 중정을 중심으로 실이 배치되는 형식이 대표적이었고, 2층 주택도 확인된다. 더운 기후에 대응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맞는 설명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대리석을 주재료로 하였다"이다. 메소포타미아는 양질의 석재가 부족하여 대리석이 아니라 흙벽돌, 소성벽돌, 갈대, 역청 등을 주된 건축 재료로 사용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거대한 고대 문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도 이집트처럼 석재 건축 중심으로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는 충적토가 풍부하고 석재가 부족한 지역이어서 건축 재료를 먼저 떠올리면 4번을 바로 걸러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대 건축 비교 문제에서는 먼저 입지와 재료를 본다. 메소포타미아는 점토와 벽돌, 이집트는 벽화 자료와 석재 건축이라는 축으로 정리하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메소포타미아는 벽돌과 중정, 이집트는 벽화와 신전정원으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3. 다음은 로마시대 주택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아트리움 중앙부에 있는 빗물을 받기 위한 수조로, 모인 물은 가사일이나 식물에 관수하는 용도로 쓰인다.

① 타블리눔 (Tablinum)
② 임플루비움 (Impluvium)
③ 페리스틸리움 (Peristylium)
④ 콤플루비움 (Compluvium)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마 주택의 아트리움 관련 공간 명칭, 특히 임플루비움과 콤플루비움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임플루비움은 아트리움 바닥 중앙에 설치한 빗물받이 수조이다.
콤플루비움은 그 위 지붕에 낸 개구부로, 빗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다.
타블리눔은 아트리움 뒤쪽의 접객·집무 공간이다.
페리스틸리움은 기둥이 둘러싼 안뜰형 정원 공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타블리눔은 아트리움과 후면 공간 사이에 놓인 접객·집무 공간이다. 틀린 표현은 '빗물을 받기 위한 수조'이다. 올바르게는 가족 문서 보관이나 접객에 쓰인 실내 공간이다.
2번 O: 임플루비움은 아트리움 중앙부의 빗물받이 수조를 뜻한다. 지붕의 콤플루비움을 통해 떨어진 물을 받아 저장하고, 그 물을 가사일이나 식물 관수에 활용하였다.
3번 X: 페리스틸리움은 주랑이 둘러싼 안뜰 또는 정원 공간이다. 틀린 표현은 '아트리움 중앙부에 있는 빗물을 받기 위한 수조'이다. 올바르게는 주거 후면의 개방형 정원 공간이다.
4번 X: 콤플루비움은 아트리움 지붕 중앙에 낸 개구부이다. 틀린 표현은 '빗물을 받기 위한 수조'이다. 올바르게는 빗물을 아래 임플루비움으로 떨어뜨리는 지붕 개구부이다.

오답 포인트

임플루비움과 콤플루비움은 둘 다 빗물 처리와 관련되어 이름도 비슷하므로, 바닥의 수조인지 지붕의 개구부인지 위치를 놓치면 쉽게 바뀐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 속 핵심 위치어를 먼저 잡으면 된다. 아트리움 바닥 중앙의 수조이면 임플루비움, 지붕의 개구부이면 콤플루비움, 기둥이 둘러싼 안뜰이면 페리스틸리움, 접객·집무용 실내 공간이면 타블리눔이다.

암기 포인트

콤플루비움은 지붕의 구멍, 임플루비움은 바닥의 물받이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중 중세 수도원 정원의 구성 중 하나로 채소원·약초원·과수원 등의 실용원(實用園)과 구분되는 장식원(裝飾園)을 일컫는 용어는?

① 페리스타일 가든(Peristyle Garden)

② 클로이스터 가든(Cloister Garden)

③ 성관정원(Castle Garden)

④ 노트 가든(Knot Garden)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세 수도원 정원의 실용원과 장식원을 구분하는 용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클로이스터 가든은 수도원 회랑으로 둘러싸인 중정형 장식원으로서 명상과 관상의 성격이 강한 공간이다.
페리스타일 가든은 고대 그리스·로마 건축의 열주 중정을 뜻하는 개념이다.
성관정원은 성곽이나 궁성에 부속된 정원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이다.
노트 가든은 낮게 다듬은 식재로 매듭무늬를 만드는 튜더기 형식정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페리스타일 가든은 열주가 둘러싼 고대 지중해식 중정 정원 개념이다. 틀린 표현은 중세 수도원의 장식원이라는 대응이다. 올바르게는 고대 그리스·로마 주택이나 건축의 내정형 정원이다.
② O: 클로이스터 가든은 수도원 회랑 내부의 중정으로, 채소원·약초원·과수원 같은 생산 목적의 실용원과 구별되는 관상·명상 중심의 장식원이다.
③ X: 성관정원은 성이나 궁성에 딸린 정원을 뜻할 뿐 수도원 정원의 장식원을 특정하는 용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수도원 장식원은 클로이스터 가든이다.
④ X: 노트 가든은 허브나 관목을 낮게 다듬어 매듭무늬를 만드는 르네상스 이후의 형식정원이다. 틀린 표현은 중세 수도원의 장식원이라는 대응이다. 올바르게는 기하학적 문양을 감상하는 장식정원 형식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페리스타일과 ②의 클로이스터는 모두 둘러싸인 중정이라는 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페리스타일은 고전 건축의 열주 중정이고, 클로이스터는 수도원 회랑과 결합한 중세 수도원 정원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수도원, 회랑, 중정, 명상, 실용원과 구분되는 장식원이라는 단서가 보이면 클로이스터 가든을 먼저 판단한다. 반대로 열주 중정이면 페리스타일, 매듭무늬 식재이면 노트 가든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수도원 장식원은 클로이스터, 고전 열주 중정은 페리스타일, 매듭무늬 형식정원은 노트 가든이다.

NoteBase

문 5.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원은?

<보기>
16세기 초 브라만테가 설계함. 노단건축법, 기하학적 대칭, 축의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테라스와 노단, 계단, 벽화가 그려진 정자, 청동이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분천, 고대의 조각상이 도입된 정원.

①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 (Cortile del Belvedere)

② 빌라 카스텔로 (Villa Castello)

③ 빌라 란테 (Villa Lante)

④ 빌라 파르네제 (Villa Farnes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 가운데 브라만테의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를 설계자, 시기, 축선과 테라스 구성, 고대 조각 도입이라는 특징으로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 브라만테, 16세기 초, 노단건축과 기하학적 대칭, 축선 개념, 테라스·계단·분천·고대 조각이 결합된 초기 르네상스 정원이다.
빌라 카스텔로: 메디치가의 빌라 정원으로 알려지며, 브라만테의 초기 축선 정원이라기보다 16세기 중엽의 빌라 정원 전개와 연결된다.
빌라 란테: 바냐이아의 후기 르네상스 정원으로 수경시설과 단계적 테라스 구성이 두드러지지만 브라만테의 작품은 아니다.
빌라 파르네제: 카프라롤라의 빌라 정원으로 비뇰라 계열의 후기 르네상스 조영과 연결되며, 보기의 '16세기 초 브라만테 설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는 브라만테가 16세기 초에 설계한 정원으로, 축선 개념을 분명히 드러내고 테라스·계단·분천·고대 조각을 결합한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대표 사례이므로 보기와 맞는다.

② X
틀린 연결은 '브라만테가 설계한 16세기 초의 최초 축 개념 정원'으로 보는 부분이다. 빌라 카스텔로는 메디치 빌라 정원 계열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보기의 설명처럼 브라만테의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를 가리키는 정원은 아니다.

③ X
틀린 연결은 '브라만테가 설계한 초기 축선 정원'으로 보는 부분이다. 빌라 란테는 후기 르네상스의 수경식 테라스 정원으로 보는 것이 맞고, 올바르게는 물의 연출과 단계적 공간 구성이 핵심인 별개의 정원이다.

④ X
틀린 연결은 '16세기 초 브라만테 설계의 정원'으로 보는 부분이다. 빌라 파르네제는 카프라롤라의 후기 르네상스 빌라 정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정원은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이다.

오답 포인트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 이름이 모두 낯설고, 빌라 란테와 빌라 파르네제도 테라스와 계단 구성이 강해 보기의 일부 특징만 보면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브라만테', '16세기 초', '축의 개념이 처음 사용', '고대 조각 도입'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르네상스 정원 식별 문제는 먼저 설계자와 시기를 잡고, 그다음 축선의 최초 도입인지, 수경시설 중심의 후기 빌라인지 구분하면 된다. 브라만테와 16세기 초, 축선 개념이 함께 나오면 코르틸레 델 벨베데레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브라만테-16세기 초-축선의 시작-코르틸레 델 벨베데레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6. 다음은 16세기 주요 빌라 정원이다. 이를 조영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Villa d’Este
㉡ Villa Farnese
㉢ Villa Castello
㉣ Villa Lante
㉤ Villa Madama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6세기 이탈리아 빌라 정원의 대표 사례를 조성된 시기 순서대로 배열하는지 묻는 순서형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Villa Madama(ㅁ) — 1518년 무렵 라파엘이 설계한 초기 르네상스 빌라 정원이다.
2. Villa Castello(ㄷ) — 1538년 코시모 1세가 조성한 메디치 정원으로 이어진다.
3. Villa d'Este(ㄱ) — 1550년 이폴리토 2세 데스테가 티볼리 총독이 된 뒤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4. Villa Farnese(ㄴ) — 1559년부터 카프라롤라의 빌라와 정원이 조성된다.
5. Villa Lante(ㄹ) — 1560년대 후반에 시작되는 후기 매너리즘 정원이다.

왜 이 순서인가: Villa Madama와 Castello가 16세기 전반의 초기 사례이고, d'Este와 Farnese가 중반, Lante가 그 뒤를 잇는 후기 사례이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 첫머리를 Villa d'Este(ㄱ)로 둔 점이 틀리다. d'Este는 1550년대 정원이고, 그보다 앞선 Villa Madama(1518)와 Villa Castello(1538)가 먼저이다. 틀린 표현은 "ㄱ-ㄴ-ㄷ-ㅁ-ㄹ"이고, 올바르게는 "ㅁ-ㄷ-ㄱ-ㄴ-ㄹ"이다.

2번 X — Villa Castello(ㄷ)를 Villa Madama(ㅁ)보다 앞세운 점이 틀리다. Castello는 1538년, Madama는 1518년이므로 선후가 뒤바뀌었다. 틀린 표현은 "ㄷ-ㅁ-ㄱ-ㄴ-ㄹ"이고, 올바르게는 "ㅁ-ㄷ-ㄱ-ㄴ-ㄹ"이다.

3번 X — 앞부분에서도 Castello와 Madama의 순서가 바뀌었고, 뒷부분에서도 Villa Lante(ㄹ)를 Villa Farnese(ㄴ)보다 앞세운 점이 틀리다. Lante는 1560년대 후반, Farnese는 1559년부터 조성된다. 틀린 표현은 "ㄷ-ㅁ-ㄱ-ㄹ-ㄴ"이고, 올바르게는 "ㅁ-ㄷ-ㄱ-ㄴ-ㄹ"이다.

4번 O — Villa Madama(1518) → Villa Castello(1538) → Villa d'Este(1550) → Villa Farnese(1559) → Villa Lante(1560년대 후반)의 흐름과 일치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Villa d'Este, Villa Farnese, Villa Lante는 모두 16세기 중후반의 이탈리아 매너리즘 정원으로 묶여 보여 순서를 혼동하기 쉽다. 특히 초기 르네상스의 Villa Madama를 가장 앞에 두어야 한다는 점과, Villa Lante가 Farnese보다 늦다는 점이 자주 흔들리는 지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런 연대 순서형 문제는 가장 이른 사례와 가장 늦은 사례를 먼저 고정한 뒤, 중간 항목을 전반-중반-후반으로 나누어 넣으면 판단이 쉬워진다. 이 문항에서는 Madama를 맨 앞, Lante를 맨 뒤에 두면 정답 배열이 빠르게 좁혀진다.

암기 포인트

마카데파란으로 묶는다. Madama → Castello → d'Este → Farnese → Lante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중 1900년 미국의 워싱턴 재건 계획안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워싱턴 계획안의 형태 때문에 일명 '연계획(Kite Plan)'으로 불렀다.

② 맥밀란 계획위원회(Macmillan Commission)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③ 랑팡(L'Enfant) 계획을 시대변화에 걸맞도록 개조한 계획안이다.

④ 라데팡스(La Defense) 계획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워싱턴 재건 계획안, 즉 맥밀런 계획의 성격과 관련 인물·배경 계획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워싱턴 재건 계획안(맥밀런 계획)은 1901~1902년 상원공원위원회가 랑팡의 워싱턴 원안을 근대적 수도 미관과 공원체계에 맞게 재정비한 계획이다.
랑팡 계획은 1791년 워싱턴의 방사형 가로와 기념축의 기본 골격을 제시한 원안이다.
맥밀런 위원회는 워싱턴 몰과 공원체계를 재편하여 수도의 상징성과 경관 질서를 회복하려 한 계획 주체이다.
라데팡스는 20세기 후반 파리 서부의 대규모 업무지구 개발로, 워싱턴 재건 계획의 선행 영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워싱턴 재건 계획안은 형태 때문에 연계획(Kite Plan)이라고도 불린다. 몰과 포토맥 일대의 녹지축이 연 모양의 외곽을 이루는 형태적 특징을 설명한 내용이므로 옳다.

② O
워싱턴 재건 계획안은 맥밀런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이다. 선지의 맥밀런 계획위원회는 이 계획 수립 주체를 가리키므로 옳다.

③ O
이 계획은 랑팡의 원안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몰 정비, 기념축 강화, 공원체계 확장으로 랑팡 계획을 현대적으로 복원·개조한 계획안이라는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라데팡스(La Defense) 계획의 영향을 받아'라는 표현이다.
라데팡스는 훨씬 뒤의 파리 서부 업무지구 개발이므로 1900년 전후 워싱턴 재건 계획의 영향원으로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랑팡 원안의 계승과 수도 미화 구상이 워싱턴 재건 계획안의 배경이 되었다고 이해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발음이 비슷한 '랑팡'과 '라데팡스'를 섞어 놓고 시대 차이를 놓치게 만드는 함정이 있다. 프랑스계 명칭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연결하면 ④를 고르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시계획사 문제에서 고유명사가 보이면 먼저 시대와 계보를 맞춘다. 워싱턴 재건 계획이 랑팡 원안의 계승인지, 아니면 훨씬 후대의 별도 개발계획과 연결된 것인지를 먼저 가르면 오답이 바로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워싱턴 재건 계획 = 맥밀런 위원회 = 랑팡 원안의 현대적 복원이며, 라데팡스와는 무관하다.

NoteBase

문 8.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유럽의 풍경식 정원을 완성한 인물이며, 설계 의뢰를 받았을 때 레드북(Red Book)을 준비했던 인물은?

① 윌리엄 챔버(William Chamber)

② 조셉 팩스턴(Joseph Paxton)

③ 험프리 렙턴(Humphry Repton)

④ 란셀롯 브라운(Lancelot Brown)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국 풍경식 정원사의 대표 인물과 핵심 업적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윌리엄 챔버는 중국 취미와 건축적 정원 연출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셉 팩스턴은 채즈워스 정원과 크리스털 팰리스로 대표되는 19세기 원예가·설계가이다.
험프리 렙턴은 브라운 이후 풍경식 정원을 계승하면서 레드북으로 설계안을 제시한 인물이다.
란셀롯 브라운은 18세기 중엽 자연풍 경관을 대규모로 조형한 대표적 풍경식 정원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윌리엄 챔버는 중국풍 정원 취향과 건축적 장식 정원으로 연결되는 인물이다. 틀린 표현은 풍경식 정원을 완성하고 레드북을 준비한 인물이라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중국 취미를 소개한 정원·건축 이론가로 본다.
2번 X: 조셉 팩스턴은 19세기 채즈워스 정원과 온실, 크리스털 팰리스 설계로 유명하다. 틀린 표현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풍경식 정원을 완성하고 레드북을 사용한 인물이라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산업기술과 대규모 온실 설계에 강한 원예가·설계가로 본다.
3번 O: 험프리 렙턴은 브라운 이후 풍경식 정원을 정리하고 픽처레스크 경향을 접목한 인물이다. 설계 의뢰를 받을 때 현재 모습과 개선안을 책 형태로 정리한 레드북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4번 X: 란셀롯 브라운은 영국 풍경식 정원의 거장인 것은 맞지만 활동 시기가 주로 18세기 중엽이며 레드북으로 설계안을 제시한 인물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레드북을 준비한 인물이라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넓은 잔디밭, 호수, 완만한 지형을 활용한 자연풍 경관 조성의 대표 인물로 본다.

오답 포인트

브라운과 렙턴이 모두 풍경식 정원가라는 점 때문에 3번과 4번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제의 결정 단서는 레드북이며, 레드북은 렙턴의 대표적 설계 제시 방식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문제는 시대와 대표 키워드를 함께 묶어 판단한다. 레드북이 보이면 험프리 렙턴, 자연풍 대지 조형이 보이면 란셀롯 브라운, 중국 취미가 보이면 윌리엄 챔버, 채즈워스와 크리스털 팰리스가 보이면 조셉 팩스턴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렙턴 = 레드북, 브라운 = 자연풍 대지 조형, 챔버 = 중국 취미, 팩스턴 = 채즈워스·크리스털 팰리스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서원조경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① 정문을 겸하는 누각은 대개 측면진입이 이루어진다.

② 교육기관 특성상 수목, 연못을 활용하지 않는다.

③ 최초의 사액사원은 도산서원으로서 세금을 감면해주었다.

④ 산수가 수려한 풍치 좋은 곳을 택하여 입지를 정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원조경의 입지, 누각의 진입 방식, 자연경물 활용, 사액서원의 기본 사실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원은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을 함께 갖춘 유교 교육 공간으로, 자연 지형과 경관을 살린 입지를 중시한다.
정문을 겸하는 누각은 대체로 누하진입으로 처리되어 서원 내부로 들어가는 공간적 위계를 형성한다.
사액서원은 임금이 현판을 내린 서원이며, 최초의 사액서원은 소수서원이고 면세 등 특전을 받았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측면진입'이다. 서원의 정문을 겸하는 누각은 대개 측면진입이 아니라 누하진입이 이루어진다. 올바르게는 '정문을 겸하는 누각은 대개 누하진입이 이루어진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수목, 연못을 활용하지 않는다'이다. 서원조경은 교육 공간이면서도 수목, 바위, 물 같은 자연경물을 적극 활용한다. 올바르게는 '서원은 수목과 자연경물을 활용하며 경우에 따라 연못도 경관 요소로 사용한다'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도산서원'이다. 최초의 사액서원은 도산서원이 아니라 소수서원이다. 사액서원에 면세 특전이 주어진 점은 맞지만 대상 서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최초의 사액서원은 소수서원이며 사액서원은 면세 등의 특전을 받았다'이다.
④ O: 서원은 대체로 산수가 수려하고 풍치가 좋은 곳을 택해 입지하며, 자연 지형을 살려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의 위계를 구성한다. 서원조경의 입지 특성을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유명한 서원인 도산서원을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착각하기 쉽고, 누각의 진입 방식을 '측면진입'으로 바꿔 묻는 표현에도 흔들리기 쉽다. 또한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원이 자연경물을 배제했다고 생각하면 ②에 속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원 관련 선지는 먼저 '소수서원=최초 사액서원'처럼 고유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누각=누하진입', '서원=자연경관 활용' 같은 공간 구성 키워드를 대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소수서원은 최초 사액서원, 서원 누각은 누하진입, 서원 입지는 산수 좋은 곳이다.

NoteBase

문 10. 소쇄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6세기 양산보가 별서로 만들었다.

② 빛과 그늘의 대비가 중요한 설계원리로 작용했다.

③ 제월당 앞 넓은 마당에 연당(蓮塘)을 판 후 그 안에 석가산을 만들었다.

④ 지형을 고려한 화계가 조성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쇄원의 조성 시기, 공간 구성, 지형 순응, 시설물 위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쇄원은 양산보가 16세기에 조성한 조선 중기 별서원림이다.
공간은 계류와 경사 지형을 따르며, 제월당의 밝은 마당과 광풍각 주변의 그늘진 공간이 대비를 이룬다.
제월당 앞마당은 비워 둔 생활 공간이고, 석가산은 광풍각 옆 암반에 놓인 요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양산보의 은둔생활 시기인 1520년부터 1557년 사이에 조성된 조선 중기 별서원림이므로 16세기 양산보가 만들었다는 설명은 옳다.
② O: 소쇄원은 제월당의 밝은 공간과 광풍각, 대숲, 계류 주변의 그늘진 공간이 대비되도록 구성되어 빛과 그늘의 조합이 중요한 공간 감상 원리가 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제월당 앞 넓은 마당에 원당(蓮塘)을 판 후 그 안에 석가산을 만들었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제월당 앞마당은 보통의 농가처럼 비워져 있었고, 석가산은 광풍각 옆 암반에 있었다.
④ O: 소쇄원은 계류를 중심으로 경사면을 계단상으로 처리한 노단식 원림이며, 매대처럼 지형을 살린 식재 공간을 두어 지형을 고려한 화계 조성이 이루어졌다.

오답 포인트

③은 제월당 구역과 광풍각 구역의 요소를 뒤섞은 선지이다. 제월당 앞마당은 비워진 공간이고 석가산은 광풍각 쪽 요소라는 위치 구분을 놓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원림 문제는 조성 주체와 시기, 지형을 따르는 배치, 정자·마당·연못·석가산이 어느 구역에 놓였는지를 먼저 대응시키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소쇄원은 양산보의 16세기 별서원림이며, 제월당 앞은 빈 마당이고 석가산은 광풍각 옆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1. 고려시대 정원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정(茅亭): 지붕을 포아풀과의 다년생초본인 띠로 이은 간소한 정원건물이다.

② 화오(花塢): 낮은 둔덕의 꽃밭을 가리킨다.

③ 장리(牆籬): 울타리의 총칭으로 공간분할을 위하여 활용된다.

④ 석가산: 지형의 변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우리 고유의 기법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시대 정원구성요소인 모정, 화오, 장리, 석가산의 정의와 기능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모정은 띠풀로 지붕을 인 소박한 정자형 정원건물이다.
화오는 꽃을 심어 가꾸는 낮은 화단 또는 둔덕형 꽃밭이다.
장리는 담장이나 울타리처럼 경계를 만들고 공간을 나누는 시설이다.
석가산은 돌이나 흙을 쌓아 산의 형상을 본뜬 인공 가산으로, 산수 경관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요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모정은 띠로 지붕을 인 간소한 정자형 건물을 가리키므로 설명이 맞다.
② O: 화오는 꽃을 심어 가꾸는 낮은 화단 성격의 공간을 뜻하므로 낮은 둔덕의 꽃밭이라는 설명이 맞다.
③ O: 장리는 담장·울타리 계열의 경계시설을 뜻하므로 공간 분할을 위해 활용된다는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지형의 변화를 얻기 위한 수단'과 '우리 고유의 기법'이라는 표현이다. 석가산은 단순한 지형 변화 장치가 아니라 돌이나 흙으로 산수 경관을 상징적으로 꾸민 인공 가산이며, 우리만의 고유 기법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오답 포인트

석가산을 '지형을 바꾸는 토목기법'처럼 이해하면 틀리기 쉽다. 이 용어는 경관 감상과 상징 표현을 위한 인공 산수 요소라는 점이 핵심이며, '우리 고유'처럼 범위를 과하게 한정한 표현도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정원 용어 문제는 먼저 시설의 성격을 구분하면 된다. 건물이면 모정, 꽃을 심는 공간이면 화오, 경계시설이면 장리, 인공 산수 표현이면 석가산으로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모정은 정자, 화오는 꽃밭, 장리는 울타리, 석가산은 인공 산수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중 한국의 궁궐과 그 구성요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경복궁 - 교태전, 취한정

② 창덕궁 - 연경당, 향원정

③ 창경궁 - 통명전, 춘당지

④ 덕수궁 - 석조전, 서향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궁궐별 대표 전각·정자·연못 같은 구성 요소가 어느 궁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경복궁은 교태전과 향원정·취향교가 대표 조합이다.
창덕궁은 연경당, 선향재, 농수정, 서향각처럼 후원과 규장각 권역 요소가 연결된다.
창경궁은 통명전과 춘당지가 대표 요소이다.
덕수궁은 석조전이 대표 서양식 전각이지만 서향각과는 무관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교태전은 경복궁의 전각이 맞지만 취향정은 경복궁 요소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취향정'이다. 취향정은 창덕궁 후원에 있었던 정자 이름이며, 경복궁 쪽 대표 요소는 향원정·취향교이다.

② X. 연경당은 창덕궁 후원 건물이 맞지만 향원정은 창덕궁이 아니라 경복궁의 정자이다.
틀린 표현은 '향원정'이다. 연경당과 연결되는 창덕궁 요소로는 선향재, 농수정 등이 적절하다.

③ O. 통명전은 창경궁의 침전이고, 춘당지는 창경궁의 대표 연못이므로 두 구성 요소가 모두 창경궁에 속한다.

④ X. 석조전은 덕수궁의 대표 전각이 맞지만 서향각은 덕수궁 요소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서향각'이다. 서향각은 창덕궁 주합루 서쪽의 규장각 서고 건물로, 덕수궁이 아니라 창덕궁과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궁궐 이름 하나만 맞으면 선지 전체를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 문제는 한 선지 안에 두 구성 요소가 함께 제시되므로 둘 다 같은 궁에 속해야 정답이 된다. 특히 향원정과 취향정, 석조전과 서향각처럼 익숙한 이름과 덜 익숙한 이름을 섞어 놓은 조합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궁궐 매칭 문제는 선지마다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각각 분리해 확인하면 된다. 둘 중 하나라도 다른 궁 소속이면 그 선지는 제외되고, 두 요소가 모두 같은 궁에 안정적으로 묶이는 선지만 정답이 된다.

암기 포인트

창경궁은 통명전-춘당지, 경복궁은 교태전-향원정, 창덕궁은 연경당-선향재·서향각으로 묶인다.

NoteBase

문 13. 다음 중 조선 왕릉의 공간구성 및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선시대부터 풍수개념을 적용하여 능의 입지가 산으로 향하였다.

② 돌을 쌓아 단을 만들고 돌계단을 만들어 그 상단에 봉분을 조성하였다.

③ 단릉 외에도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망주석, 장명등, 정자각 등의 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선 왕릉이 통일신라와 고려의 묘제 요소를 어떻게 계승했고, 봉분 형식이 단릉에만 한정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일신라 말기에는 풍수 개념이 적용되면서 왕릉 입지가 평지에서 산지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망주석, 장명등, 정자각, 비각 등이 처음 등장하여 왕릉 조영이 한층 정교해졌다.
조선 왕릉은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면서도 단릉 외에 쌍릉, 합장릉, 동원이강릉, 동원상하릉, 삼연릉 등 다양한 형식을 보인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조선시대부터"이다.
풍수 개념이 적용되어 능의 입지가 산지로 향하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 말기부터이며, 조선은 그 원칙을 계승한 시기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돌을 쌓아 단을 만들고 돌계단을 만들어 그 상단에 봉분을 조성"이다.
이 설명은 고구려 석총 같은 계단식 석묘의 특징에 가깝고, 조선 왕릉은 자연 지형 위에 봉분을 두고 능침공간과 제향공간을 구분하여 조성한 것이 일반적이다.

③ O
조선 왕릉은 단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릉, 합장릉, 동원이강릉, 동원상하릉, 삼연릉 등 여러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단릉 외에도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이다.
망주석, 장명등, 정자각 등의 시설은 고려시대에 이미 등장하였고, 조선은 이를 계승하면서 배치와 형식을 정비한 시기이다.

오답 포인트

조선 왕릉의 대표 요소를 묻는다고 해서 그 요소가 모두 조선에서 처음 생겼다고 오해하기 쉽다. 또한 풍수 적용 시기, 석물의 등장 시기, 봉분 형식의 다양화를 한 시대로 뭉뚱그리면 ①과 ④에 쉽게 끌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왕릉 관련 선지는 먼저 "처음 등장한 시기"와 "계승·정비한 시기"를 구분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풍수에 따른 산지 입지는 통일신라 말기부터, 망주석·장명등·정자각의 등장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은 이를 예제에 맞게 체계화하고 봉분 형식을 다양화한 시기이다.

암기 포인트

풍수 산지화는 통일신라 말, 망주석·장명등·정자각은 고려 등장, 조선은 다양한 능 형식을 정비한 시기이다.

NoteBase

문 14. <보기>에서 설명하는 굴뚝이 있는 곳은?

<보기>
후원의 굴뚝벽면에는 해, 산, 구름, 바위, 소나무, 거북, 사슴, 학, 불로초 등 십장생과 바다, 포도, 연꽃, 대나무가 장식되어 있다. 굴뚝의 상단에는 용을 중심으로 좌, 우로 학이 배치되고 하단부에는 해태 두 마리가 배치되어 있으며, 좌우 측면에는 박쥐와 당초문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문양들은 모두 흙으로 따로 구워서 벽면에 장식되고 그 위에 채색하여 화려하게 꾸며졌다.

① 경복궁 교태전
② 경복궁 자경전
③ 창덕궁 낙선재
④ 창덕궁 선정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후원 굴뚝의 장식 요소를 보고 경복궁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자경전 굴뚝은 경복궁 자경전 후원에 있는 담장형 굴뚝으로, 벽면에 십장생과 바다·포도·연꽃·대나무를 장식하고 상단에 용과 학, 하단에 해태를 둔 화려한 굴뚝으로 알려져 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으로 뒤편 아미산 굴뚝이 함께 거론되는 건물이지만, 제시문처럼 자경전 후원의 담장형 굴뚝에 십장생과 용·학·해태를 배치한 설명과는 다르다.
틀린 표현은 '경복궁 교태전'이다. 올바르게는 '경복궁 자경전'이다.

② O
자경전 뒤 굴뚝은 이른바 십장생 굴뚝으로, 해·산·구름·바위·소나무·거북·사슴·학·불로초와 바다·포도·연꽃·대나무를 장식한 대표 사례이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③ X
낙선재는 창덕궁의 생활 공간으로 검소한 분위기의 건물이며, 제시문 같은 화려한 십장생 장식 굴뚝의 대표 사례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창덕궁 낙선재'이다. 올바르게는 '경복궁 자경전'이다.

④ X
선정전은 창덕궁의 편전으로 청기와가 특징인 건물이다. 제시문의 핵심 단서인 자경전 후원 굴뚝의 십장생 장식과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창덕궁 선정전'이다. 올바르게는 '경복궁 자경전'이다.

오답 포인트

교태전도 경복궁의 대표 굴뚝과 함께 자주 언급되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교태전은 아미산 굴뚝, 자경전은 후원의 십장생 굴뚝이라는 식별점이 다르다. 낙선재와 선정전은 창덕궁 건물이라는 점에서 궁궐 자체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궁궐 굴뚝 문제는 먼저 경복궁과 창덕궁을 나누고, 다음으로 '십장생·용·학·해태·후원 담장형 굴뚝' 단서가 보이면 자경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경전 굴뚝 = 경복궁 후원 + 십장생 + 용·학·해태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중 방지원도(方池圓島)로 조성된 연못은?

① 창덕궁 부용지

② 창덕궁 애련지

③ 경회루 방지

④ 창덕궁 반도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통 연못의 형식 가운데 방지원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지·반도형 연못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방지원도는 네모난 연못인 방지 안에 둥근 섬인 원도를 둔 형식이다.
방지는 연못 외곽이 네모난 형식을 뜻하며, 원도가 없으면 방지원도라고 할 수 없다.
반도지는 섬이 둥글게 독립한 형식이 아니라 육지처럼 길게 돌출된 반도형 수면 구성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창덕궁 부용지는 정방형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둔 대표적인 방지원도이다. 방지와 원도가 함께 확인되므로 정답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방지원도"이다. 창덕궁 애련지는 방지형 연못으로 보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방지원도의 대표 사례로 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애련지는 방지형 연못으로 정리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원도"이다. 경회루 방지는 큰 방지 안에 여러 섬과 연결 통로가 놓인 형식이지, 하나의 둥근 섬을 둔 방지원도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방지에 다수의 섬을 둔 형식으로 본다.

④ X
틀린 부분은 "원도"이다. 창덕궁 반도지는 이름 그대로 반도처럼 돌출된 형태를 가리키는 연못이지, 방지 가운데 둥근 섬을 둔 형식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반도형 연못 또는 관람지 계열의 수경 공간으로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네모난 연못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② 애련지나 ③ 경회루 방지를 함께 고르기 쉽다. 그러나 방지원도는 반드시 방지와 원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 경회루 방지는 방지는 맞지만 원도가 아니라 여러 섬이고, 반도지는 아예 반도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못 문제는 먼저 외곽이 네모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가운데 섬이 둥글게 독립해 있는지 본다.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 하나가 있으면 방지원도이고, 섬이 여러 개이거나 반도처럼 붙어 있으면 다른 형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용지는 방지+원도, 경회루는 방지+여러 섬, 반도지는 반도형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중 서원(書院)의 외부공간 구성요소 중 제례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시설은?

① 성생단(省牲壇)

② 관세대(盥洗臺)

③ 정료대(庭燎臺)

④ 망료위(望燎位)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원의 외부공간 시설 가운데 제향 절차에 직접 쓰이는 시설과 일반 보조시설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성생단은 제향에 올릴 희생을 살피는 단으로 제사 준비와 직접 연결된다.
관세대는 제관이 제향 전에 손을 씻는 물대야를 올려두는 시설로 제사 의식의 전처리 공간이다.
정료대는 뜰을 밝히기 위해 관솔불이나 횃불을 피우는 등화시설로 기능의 중심이 조명에 있다.
망료위는 제향을 마친 뒤 축문이나 제의 관련 문서를 태우는 자리로 제례 절차의 마무리와 직접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성생단은 제향 희생을 검사하는 시설이므로 제례와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
② O 관세대는 제관이 제향 전에 손을 씻는 시설이므로 제례 준비 절차에 직접 속한다.
③ X 정료대는 주기능이 뜰을 밝히는 등화시설이므로 제례 전용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틀린 표현은 제례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제례와의 직접 관련성이 네 선택지 중 가장 약하다.
④ O 망료위는 제향 후 축문 등을 태우는 자리이므로 제례의 마무리 절차와 직접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정료대도 제향 공간 주변에 놓일 수 있어 제례시설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용도이다. 성생단·관세대·망료위는 제향 절차의 준비와 진행, 마무리에 직접 쓰이는 반면 정료대는 기본적으로 불을 밝히는 보조시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원 시설 문제는 이름보다 기능을 먼저 대조하면 풀린다. 제물 검사, 손 씻기, 축문 소지는 제례 절차 자체이고, 조명이나 일반 편의 기능은 제례와의 직접성이 한 단계 낮다.

암기 포인트

성생단은 희생 검사, 관세대는 손 씻기, 망료위는 축문 소지, 정료대는 등화시설이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별서를 조영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담양 소쇄원
㉡ 강진 다산초당
㉢ 보길도 부용동정원
㉣ 서울 부암정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리나라 대표 별서정원의 조성 시기를 앞뒤 관계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담양 소쇄원 — 양산보가 조성한 조선 중기 별서정원이다.
2. 보길도 부용동정원 — 윤선도가 조성한 조선 후기 별서정원이다.
3. 강진 다산초당 — 정약용의 유배 생활과 관련된 조선 후기의 공간이다.
4. 서울 부암정 — 윤웅렬·윤치호와 관련된 근대기의 별서이다.

왜 이 순서: 소쇄원은 16세기, 부용동정원은 17세기, 다산초당은 19세기 초, 부암정은 그보다 늦은 근대기이므로 ㄱ → ㄷ → ㄴ → ㄹ의 흐름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ㄴ을 ㄷ보다 앞에 두어서 틀리다. 강진 다산초당은 정약용과 관련된 19세기 초의 공간이고, 보길도 부용동정원은 윤선도가 조성한 17세기 정원이다. 틀린 표현은 'ㄴ → ㄷ'의 선후관계이며, 올바르게는 'ㄷ → ㄴ'이다.

② O: 담양 소쇄원(16세기) → 보길도 부용동정원(17세기) → 강진 다산초당(19세기 초) → 서울 부암정(근대기)의 순서가 맞다.

③ X: 가장 이른 소쇄원을 둘째에 두고, 근대기의 부암정을 다산초당보다 앞에 두어서 틀리다. 올바르게는 첫머리가 'ㄱ'이어야 하고, 뒤쪽 순서는 'ㄴ → ㄹ'이어야 한다.

④ X: 보길도 부용동정원을 맨 앞으로 두어 소쇄원보다 이르게 배치한 점이 틀리다. 또한 소쇄원과 부용동정원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ㄱ → ㄷ → ㄴ → 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소쇄원과 부용동정원을 모두 전통 별서로만 기억하면 두 정원의 선후를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은 '양산보의 소쇄원은 조선 중기, 윤선도의 부용동정원은 그 뒤의 조선 후기'라는 시대 차이를 묻고, 다산초당과 부암정은 더 늦은 시기라는 점까지 연결해야 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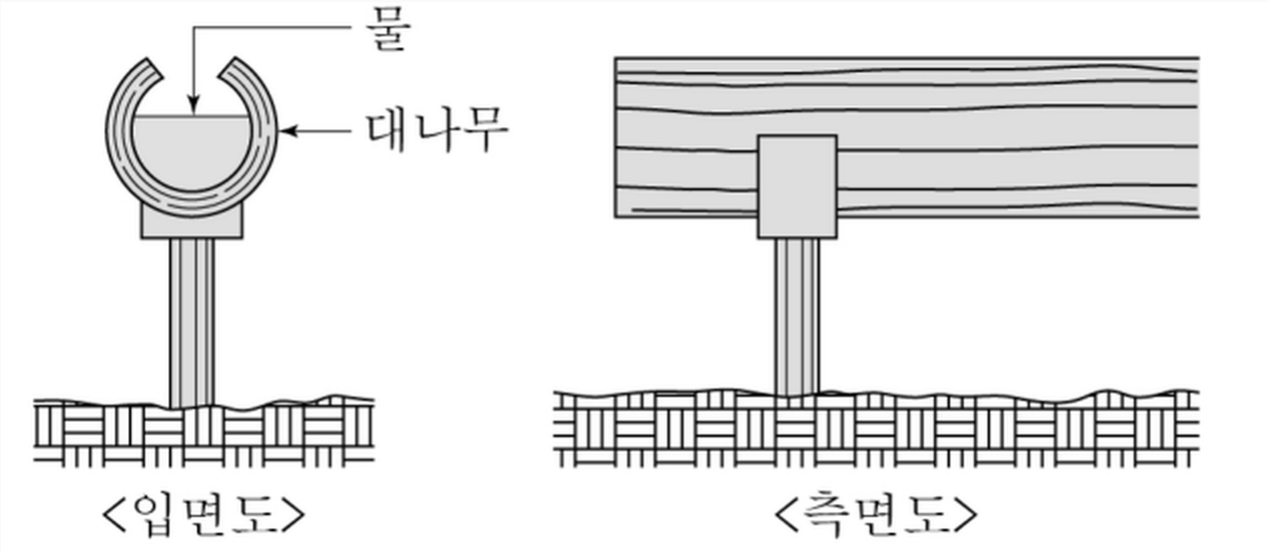
별서 순서 문제는 인물과 시대를 같이 묶어 판단하면 된다. 양산보-소쇄원은 16세기, 윤선도-부용동정원은 17세기, 정약용-다산초당은 19세기 초, 부암정은 근대기로 잡으면 선후가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소쇄원 → 부용동 → 다산초당 → 부암정은 조선 중기 → 조선 후기 → 조선 후기 말 → 근대기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그림은 한국 전통공간에 사용되는 시설물의 모식도이다. 이 시설물의 명칭은?



① 비구

② 곡수거

③ 축구

④ 지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식에 나타난 대나무 홈통과 물의 흐름을 보고 전통 수로 시설인 비구를 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비구는 물을 끌어들이거나 떨어뜨리기 위해 대나무 등으로 만든 홈통이다. 곡수거는 술잔을 띄워 흘려 보내는 굽은 물길이고, 측구는 길이나 공간 가장자리에 길게 내는 배수로이며, 지당은 물을 담아 두는 연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그림은 속을 판 대나무가 받침 위에 놓이고 그 안으로 물이 흐르는 형식이다. 이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나무 등으로 만든 홈통인 비구의 전형적인 모습이므로 맞다.
② X. 곡수거는 물길이 굽이치도록 만든 곡선형 수로이다. 그림처럼 짧은 대나무 홈통을 세워 물을 흘리는 시설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이 시설물이 곡수거이다'이다. 올바르게는 '곡수거는 굽은 수로이고, 이 그림은 대나무 홈통인 비구이다'이다.
③ X. 측구는 길이나 공간의 측면을 따라 길게 파서 배수하는 도랑형 시설이다. 그림처럼 원통형 대나무를 이용해 물을 유도하는 입면 구조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이 시설물이 측구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측구는 측면 배수로이고, 이 그림은 비구이다'이다.
④ X. 지당은 물을 담아 두는 못이나 연못을 뜻한다. 그림은 물을 저장하는 수면 공간이 아니라 물을 흘려 보내는 수로 장치이므로 지당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이 시설물이 지당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지당은 연못이고, 이 그림은 물을 유도하는 비구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수경시설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연못인 지당이나 수로 문화시설인 곡수거로 넓게 묶어 판단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의 함정은 시설의 용도를 넓게 떠올리게 한 뒤, 실제 형태인 '대나무 홈통'이라는 결정 단서를 놓치게 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수경시설 문제는 먼저 물을 담는 시설인지, 흘리는 시설인지, 끌어들이는 시설인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재료와 형상을 본다. 대나무 홈통이면 비구, 굽은 물길이면 곡수거, 길 가장자리 배수도랑이면 측구, 면으로 물을 담아 두면 지당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비구는 대나무 홈통, 곡수거는 굽은 물길, 측구는 측면 배수로, 지당은 연못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중 별서정원이 아닌 것은?

① 옥호정(서울특별시 소재)

② 양진당(경상북도 소재)

③ 옥류각(대전광역시 소재)

④ 석파정(서울특별시 소재)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별서정원의 개념을 알고, 제시된 사례가 본거주지와 분리된 별서인지 아니면 종가 가옥인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별서정원은 본가와 떨어진 곳에 휴양·은일·풍류를 위해 조성한 별서의 정원이다.
종가 가옥은 일상 거주와 가문 생활의 중심이 되는 주거 공간이며, 경관이 뛰어나더라도 곧바로 별서정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옥호정은 서울에 있었던 김조순의 별장으로 알려진 대표적 별서 사례이므로 별서정원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양진당을 별서정원 사례로 본 점이다.
양진당은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의 풍산 류씨 종가 가옥으로 분류되며, 본거주지와 분리된 별서정원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다.

③ O
옥류각은 대전 지역의 대표적 별서 관련 누정으로 다루어지는 사례이므로 별서정원 범주에 넣는다.

④ O
석파정은 흥선대원군의 별장으로 알려진 대표적 별서정원 사례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양진당처럼 이름 끝이 당으로 끝나고 경관성이 있는 전통 건축은 별서정원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함정은 명칭이 아니라 공간의 성격이며, 종가 가옥인지 별서인지가 결정 기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정원 사례 문제는 먼저 그 장소가 본가와 떨어진 휴양·은일용 별서인지, 아니면 실제 생활 중심의 종가·주거 가옥인지부터 구분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옥호정·옥류각·석파정은 별서정원, 양진당은 종가 가옥이다.

NoteBase

문 20.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15세기 일본의 대표 정원은?

<보기>
250m²의 장방형 평지에 15개의 돌과 흰모래를 깔아 마감한 의장은 마치 선(禪)의 이상을 표현한 것처럼 보는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상상력을 돋구어 준다.

① 용안사 방장정원
② 정유리사 정원
③ 계리궁 정원
④ 육의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본 정원의 시대별 양식 중 선종 영향의 가레산스이 정원을 대표 사례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용안사 방장정원은 무로마치 시대의 대표적 가레산스이 정원으로, 흰 모래와 15개의 돌만으로 산수와 선의 세계를 상징한다.
정유리사 정원은 연못을 중심으로 한 정토식 정원으로, 가레산스이 석정과 성격이 다르다.
계리궁 정원은 에도 초기의 회유식 정원으로, 걸어 다니며 경관을 감상하는 별궁 정원이다.
육의원은 에도 시대 대명정원의 대표 사례로, 역시 회유식 정원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250m² 남짓한 장방형 평지에 흰 모래와 15석을 배치한 선종적 석정은 용안사 방장정원의 전형적 설명과 일치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정유리사를 15세기 선종 석정으로 연결한 점이다. 정유리사 정원은 연못을 중심으로 한 정토식 정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계리궁을 무로마치 시대의 석정으로 본 점이다. 계리궁 정원은 에도 초기의 회유식 정원으로, 산책하며 경관 변화를 즐기는 형식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육의원을 선종 가레산스이 정원으로 본 점이다. 육의원은 에도 시대의 대명 회유식 정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지들이 모두 일본의 유명 정원명이어서 이름만 익숙하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15세기', '15개의 돌', '흰 모래', '선의 이상'이며, 이 조합은 연못정원이나 회유식 정원이 아니라 용안사의 가레산스이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본 정원 문제는 먼저 연못 중심인지, 돌과 모래 중심인지, 걸어 다니는 회유식인지로 형식을 가른 뒤 대표 사례를 연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흰 모래와 소수의 돌로 추상적 산수를 표현하면 가레산스이, 그 대표 사례는 용안사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용안사=15석·백사·선종 가레산스이, 계리궁·육의원=에도 시대 회유식, 정유리사=정토식 연못정원이다.

NoteBase